

제1세대의 퇴직

정 범 진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원자력의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어느 나라나 원자력연구소의 탄생은 1950~60년대이고 초창기 원자력 분야는 대단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분야로 출발한다.

원자력 발전이 주는 너무나도 강력한 경제적 매력은 원자력산업을 조기에 포화 상태로 만든다. 오히려 이 때문에 원자력 부문은 장기간의 불황을 경험하게 된다.

한동안 닳치는 대로 채용을 하던 분야가 어느 날 갑자기 신규 채용을 중단하면 대학이 문을 닫고 졸업생은 결국 공공 부문으로 진출하게 된다.

다른 분야에도 영향은 있다. 불과 몇 년 차이로 입사를 했는데 직장 내 서열의 차이가 엄청나다. 시간이 지나도 직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바뀌지 않고 업무가 바뀌지 않으면 매너리즘에도 빠진다. 대중의 지지는 줄어들고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제1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이 퇴직하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른바, 제2차 원자력산업의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세계적인

추세이다.

제1세대 전문 인력은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가와 같다. 초창기 원자력 부문의 아무런 밑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원자력 부문에 투신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을 것이다. 너무 일찍 뛰어들어 든 사람은 실패를 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뛰어들어 든 사람에게는 달콤한 열매를 얻기도 하였다. 한 분야에서 30년간 원로로서 장기 집권(!)하는 특혜를 누린 것이다.

한편 그것보다 늦게 투신한 사람은 외풍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대신 만년 2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원로로서 권한 혹은 의무를 다할 기간도 얼마 되지 않는다. 한 번도 방향타를 잡아보지 못하고 지근거리에서 비판적 시각만 키워온 후임자가 방향타를 잡는 것도 두려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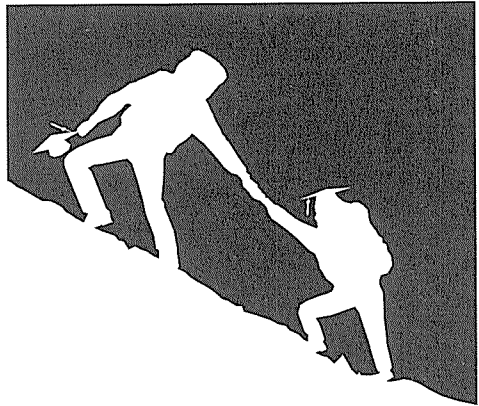
얼마 전 서울대학교 정창현 교수님의 정년 퇴임식에 참석하고 불과 25년 뒤를 쫓고 있는 나의 정년 퇴임식은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 보았다. 원자력 부문 밖의 인사들과의 교분도 없고 파란만장한 무용담도 없을지 모른다. 학술 연구를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생애에 논문

“

제1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이
퇴직하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른바 제2차 원자력산업의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세계적인 추세이다.
문제는 지금의 원자력 사회가 제1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이 퇴직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제2차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



을 몇 편 썼고 연구 과제를 몇 개 수행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경력 소개는 아무래도 심심할 것 같기도 하다.

후배들도 시절을 잘 만났으면 그들과 같이 되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탁자 위에 달걀을 세운 사람들이다. 그들의 역할은 분명하고도 뚜렷하다. 다만 후배들이 그들이 원자력의 동틀 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할 뿐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제1세대 선배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배들에게도 역할 모형이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제는 지금의 원자력 사회가 제1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이 퇴직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제2차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1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이 초창기 원자력 부문의 입지를 위해서 취득해야 했던 법적·행정적 지식 기반을 후세대들은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타부문의 인사들과의 교분도 역시 두텁지 못하다. 정책 수립자와의 교감의 부문에 있어서도 동료 의식이 퇴화되었다. 원자력의 선배들이 갖추어놓은 울타리 안에서 잘 자

랐을 뿐이다. 잘 뛰는 방법만 알지, 방향을 제시할 능력이 배양되었을지는 알 수 없다.

이제는 경험 많은 전문 인력 1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3명이 나누어 수행해야 할런지도 모른다. 법과 행정을 초월한 기관간의 유대 관계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게다가 새로이 산업에 진출하는 Y-세대는 사고 방식과 직업 의식은 이전 세대와 너무도 다르다.

이공계 기피,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 분야에 신규로 유입되는 인력의 자질도 높지 않다. 대학에서 수용해야 할 지식 분야가 넓어지는 것에 비례하여 졸업생의 수학 정도는 박약해진다. 신규 채용이 없었던 장기간, 원자력 관련 기관의 교육 훈련 기능도 퇴화해 버렸다.

우리가 기다리는 원자력의 두 번째 르네상스는 어떤 모습일런지 그려지지 않는다. 88